

地域社會 開發을 위한 圖書館의 役割

— 公共圖書館 現場을 中心으로 —

朴 尚 均*

目 次

1. 緒 論
2. 公共圖書館의 實像
3. 公共圖書館의 育成方案
4. 結 論

1. 緒 言

1981년 6월 23일, 文化公報部長官은, 第五共和國의 “80年代 文化政策”을 發表하였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注目을 끌게 했던 것은 教育의 文化的 役割을 提高하면서, “圖書流通構造를 體系化하기 위하여 圖書出版 및 總販公社의 設立을 支援하고 出版金庫의 運營을 擴大하고, 郡 單位에 1個의 圖書館을 目標로 年次的으로 圖書館을 建立하여 小規模 地域社會 圖書館을 開設할 方針이다.”라고 한 內容은 우리 圖書館人들 뿐만 아니라 地域社會의 住民들에게 큰 鼓舞的인 事實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政府가 圖書館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 慶賀할 일이다. 한 가지 우리 圖書館人들로서 아쉬운 점이라면 “1郡 1個 圖書館 建立” 方針에 대한 政府의 具體的인 年次的 計

* 江南社會福祉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淑明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講師

劃案이 아울러 提示가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過去에도 政府에서 새로운 르네상스運動의 一環으로서 「公共圖書館 擴充 五個年計劃」을 發表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4년에 당시 政府의 發想에서가 아니라 韓國圖書館協會 主催로 第1回 全國公共圖書館長會議를 國立中央圖書館에서 開催하였을 때, 全國 各市·區·郡마다 5年 안에 1個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것을 內容으로 하는 公共圖書館 設置計劃案을 作成하여 이를 政府當局에 建議한 바 있었는데, 그로부터 4년 후인 1968년에 비로소 政府에 의하여 우리의 公共圖書館 擴充을 위한 計劃案이 받아들여 졌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期待를 걸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의 政府는 「公共圖書館 擴充 五個年計劃」을 具體적으로 밝혔었다. 즉 1968년에 10個館, 1969년에 10個館, 1970년에 13個館, 1971년에 8個館, 1972년에 13個館 合해서 54個館을 1968년도부터 5個年 동안에 年次的으로 建立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豫算 1億 6千 3百萬圓을 策定까지 했었으나 5次年度가 끝나기도 전에 이 計劃은 中斷됨으로서 그후 公共圖書館 發展에 대한 政府의 政策的인 配慮는 期待할 수 없는 狀態였다. 1968년을 起點으로 하여 政府가 國民의 文化的 創造를 全面的으로 장려하고 그것을 活性化 할 것으로 期待가 컸었던 우리 圖書館界는 政策立案者들이 圖書館이 國家發展에 重要한 役割을 하는 社會教育機關이라는 사실을 깊이 認識하지 못하고, 우선 더 시급했던 것이 國防問題와 經濟開發問題 등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公共圖書館 發展計劃은 挫折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 圖書館人들의 끊임 없는 鶴望이 항상 外面 당해왔으나, 그 후에도 이에 失望하지 않고 時代的 召命意識을 갖고 우리 圖書館人들은 圖書館을 發展시키는 것이 전반적인 文化發展이나 國家發展을 위한 捷徑이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社會輿論에 呼訴하고 圖書館政策을 樹立할 것을 政府當局에 認識시키는 運動을 展開해 왔었다.

작년 第五共和國의 誕生과 함께 “80年代 文化政策”에 대한 文化公報部長官의 발표는 過去 그 어느 政府 보다도 強力한 政府意志가 담겨져 있다고 믿어져 우리의 새로운 關心과 期待는 자못 큰 것이다.

政府가 이처럼 積極的인 意志를 表明하게 된 背景은 第五共和國의

憲法 第 29 條 5 項과 6 項에 있는 國民의 平生教育을 振興시키는데 그 目的을 두고, 그 憲法精神을 具顯하기 위한 國家의 文化政策的次元에서 全國的 規模의 圖書館政策, 出版文化政策的 綜合的計劃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政府가 비로소 公共圖書館이 바로 國民의 平生教育機關으로서 國家發展과 社會開發에 重要한 役割을 담당하고, 地域社會의 住民을 위한 教育機關으로서의 存在價値를 깊이 認識하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차계에 우리 圖書館人으로서 政府에 바라고 싶은 바는 政府가 “80年代 文化政策”을 遂行함에 있어서, 公共圖書館의 育成 만이 地域社會의 모든 部門의 發展을 促進시킬 수 있으며, 우리 地域社會의 住民들로 하여금 현명한 市民性과 풍부한 人間생활을 증진케 하고, 나아가서는 國家와 民族의 繁榮에 寄與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政府의 “80年代 文化政策” 중 「圖書館政策」을 第 1 順位로 끌어올려 줬으면 한다. 그리고 政府에 또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圖書館은 文化的機能 보다는 教育的機能が 훨씬 強하다는 事實 때문에 圖書館은 廣意로는 文化機關이요 狹意로는 教育機關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現在 文化公報部는 文化 즉 文芸를 主管한다고 볼 때 圖書館의 業務는 당연히 文教部에 屬한다고 본다. 大學圖書館 및 學校圖書館의 教育機能을 누구도 否認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公共圖書館에 있어서도 平生教育을 위한 社會教育機關으로서의 教育機能에 反論을 提起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大學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과 같은 機能을 지닌 公共圖書館의 경우, 그 圖書館 發展計劃을 教育專担部署의 最高行政責任者인 文教部長官이 發表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文化公報部長官이 “80年代 文化政策” 중 一環으로서 圖書館政策을 發表했다는 것은 困難한 문제이며 理解할 수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려는 政府의 圖書館政策의 貧困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도 하루 속히 圖書館政策의 一元化가 이루어져야 겠으며, 關係部處間에 社會教育機關인 公共圖書館의 專担部署 設置를 위한 活潑한 論議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政府는 하루속히 확고한 圖書館政策을 樹立하여 보다 具體的인 圖書館 發展計劃案을 國民 앞에 發表

했으면 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圖書館 育成의 一次의 責任을 가진 政府에서 圖書館發展에 대해서 극히 微溫的이고 消極的이었다.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圖書館政策으로서 圖書館의 發展을 바란다는 것은 奇蹟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圖書館에 대한 社會的 必要性이 날로 增大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러한 시급한 문제가 늘 뒤로 미루어지기 일쑤였다.

그리하여 國力の 象徴이라고 할 수 있는 公共圖書館의 現況은 다른 部門에 비해서 날로 沈滯되어져 가고 있는 형편이다. 美國을 비롯하여 歐羅巴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圖書館의 機械化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소위 中進國으로 自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設置에 힘 쓰고 있는 초기적 狀況에 있다.

2. 公共圖書館의 實像

圖書館이 한 나라의 社會組織 안에서 뚜렷한 位置를 차지하고 社會的 機能으로서의 圖書館의 機能이 具體的으로 浮刻될 때 비로소 圖書館의 社會的 存在價値가 客觀的으로 認定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公共圖書館은 아직도 그 存在價値가 明白하지 못하다.

現在 우리 國民들 가운데, 公共圖書館은 바로 國民의 平生教育機關인 동시에 새로운 生活情報를 創造하는 知識의 産室로서, 公共圖書館은 마치 學校나 法院이나 病院이나 教會나 官廳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社會機構의 하나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과연 전체 國民의 몇%나 될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현재의 公共圖書館은 市民들의 生活과는 無緣한 位置에 있으며, 少數의 特殊한 사람이나 學生들의 工夫하는 場所로 알고 있을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市民들은 아직 「圖書館」을 發見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圖書館의 社會的 存在 理由는 그 發展過程으로 볼 때 生活者들의 現實的 要求로부터 出發하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市民社會의 內在的 要請에 의하여 存在하게 되는 것이다. 圖書館의 發展 과정이 이처럼 住民들의 必要性에 의하여 생긴 만큼 利用者들 스스로 讀書를 發見하고

知識·情報·教育을 獲得하게 되므로 利用者들은 도서관의 책자를 대할 때는 친근한 벗이나 스승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圖書館을 「民衆의 大學」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 한 例로서 이웃나라 日本만 해도 地域社會의 住民들은 圖書館을 要求하기 위해 住民들이 署名한 文書를 市長이나 市議會議長에게 提出할 만큼 住民들의 文化的要求가 強하다고 한다. 圖書館을 더 많이 設立해 달라는 市民運動은 이제는 大都市를 中心으로 해서 激烈한 勢力으로 번져가고 있고, 全國에 波及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圖書館 設置運動은 數年間に 急速히 高調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圖書館이 文化的 裝飾品이 아니라 市民生活에 必要不可缺한 存在라는 것을 認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의 現實은 어찌된 일인지 뚜렷한 것으로는 國民全體와 社會全體가 圖書館에 대한 認識이 지극히 稀薄하다는 사실이다. 그 증거로는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나 教會堂은 없는 곳이 거의 없지마는 公共圖書館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그 이유는 教會堂은 住民들에게 있어 고단한 靈魂의 安息處가 되어 줌으로써 住民들의 切實한 內在的 要請이 되고 있으나 公共圖書館 같은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답답할 것이 없다는 정도로 주민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도서관이 주민들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 아직 「圖書館을 發見」치 못하였기 때문이며, 「讀書를 發見」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住民들이 圖書館을 發見치 못한 것은 地域社會의 住民들에게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啓蒙같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민들에게 있어 공공도서관은 아주 생소한 存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住民들의 內的 認識의 問題도 있지만 그보다는 政府의 철저한 도서관 정책의 不在에 있는 것 같다. 教育의 二大支柱의 하나인 社會教育機關중에서 그 中樞的인 代表機關인 公共圖書館이 政府의 法的인 뒷받침이나 制度的 體系가 잡히지 않은 채 放置되어 왔기 때문이다.

寡聞의 탓인지는 몰라도 筆者는 일찌기 市長이나 國會議員들이 그 地域社會의 住民들에게 圖書館의 必要性을 力說한 사실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훌륭한 市民센터나 文化會館을 中央市街 한

북관에 建立한 것을 볼 때 어떤 義憤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市民 가까이 있어야 할 國立中央圖書館은 住民의 接近이 어려운 南山 꼭대기로 밀려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저 政府를 탓 하기 이전에 公共圖書館에 대한 住民들의 強烈的한 要求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韓國圖書館協會에서 發行한 「한국도서관 통계, 1979年版」과 經濟企劃院 발행의 「한국통계연감, 1980年版」을 參考하여 公共圖書館의 現況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韓國의 公共圖書館 總數는 全体人口 34,708,542名에 全國에 118個館이 있다. 그리고 閱覽座席 總數는 31,286席이다. 이를 다시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및 道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경우, 人口 6,889,470名에 圖書館數는 8個館, 座席數는 7,697席이며, 釜山은 人口 2,454,051名에 圖書館數는 6個館이고 座席數는 2,809席이다. 그러니까 서울과 釜山 人口數 9,343,521名에, 圖書館數는 14個館, 閱覽座席數는 10,503席이란 셈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全体人口의 약 35%가 살고 있는 서울과 釜山에 圖書館數는 全体 公共圖書館의 약 11.8%에 不過하다. 釜山은 그만 두고라도 소위 한 나라의 教育文化의 中心地요, 世界 有數의 700萬 大人口를 자랑하는 首都 서울에 文化의 殿堂 구실을 하는 公共圖書館數가 불과 8個館 뿐이라니 首都 서울의 體貌가 말이 아니다. 그리고 700萬 人口를 奉仕對象으로 하는 閱覽座席數가 겨우 7,697席밖에 안 된다니 이것은 서울市內 3개 綜合大學校 圖書館의 閱覽座席數를 합친 것만도 못한 숫자여서 한마디로 창피스런 생각마저 들게 한다. 現代都市가 教養都市化를 志向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情報化時代를 살아가는 社會現象에서 볼 때, 서울市民들은 서울에 娛樂場이나 遊興業所 등은 必要로 하고 있지만은 社會教育의 場인 圖書館의 必要性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인가. 圖書館의 必要性에 대한 市民들의 內在的 要請이 크게 作用하고 있다면 市民과 圖書館의 連結이나 圖書館의 實際的인 活動에 대한 振作의 폭은 훨씬 넓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서울 700萬市民의 無關心 속에서 市民生活과 遊離되어 있는 서울市內 8個 圖書館의 實態는 어떠한지 알아보자. 한마디로 말해

서 施設이라든가 豫算, 藏書 등을 볼 것 같으면 너무나 貧弱한데 失望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現象 같기도 하다. 그것은 市民들의 圖書館에 대한 無關心의 所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서울 市民들의 귀여운 子女들인 學生들은 圖書館 閱覽座席數가 모자라 새벽 5時부터 圖書館 앞에서 줄을 지어 기다려야만 가까스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딱한 실정인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 市内 8個 圖書館의 總座席數는 7,697席밖에 안 되어 한 座席을 놓고 약 895名이 서로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해야만 하는 판국이기 때문이다.

현재 公共圖書館의 利用者層은 固定化되어 있다. 즉 大學·高校生의 受験工夫 場所를 提供하는 것이 고작이고 一般市民의 利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설사 일반 市民이 이용하려고 하여도 항상 滿員인 상태이기 때문에 公共圖書館 設立의 精神인 國民各者의 生涯教育의 現場이 되지 못하고 學生들의 「受験工夫 場所」 또는 「讀書室」로 變해버린 사실을 否認할 수가 없다. 이처럼 公共圖書館이 사실상 學生圖書館으로 둔갑해 버린지는 이미 오래 되며, 圖書館의 利用은 年年 加速적으로 伸長되어 가고 있는데도 關係當局에서는 이렇다할 어떤 對策을 講究할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러한 原因으로 해서 地域社會 住民들의 平生教育의 場인 公共圖書館은 住民들의 圖書館에 대한 無關心을 더욱 助長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어 住民들과는 더욱 遊離되어 이제는 住民들에게 公共圖書館의 存在는 學生들이나 일부 知的 職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調查研究의 場所라는 印象을 더욱 強하게 주고 있다. 이와 같은 成人社會層의 圖書館에 대한 無知와 無關心 내지 外面心理는 圖書館의 沈滯를 더욱 加重시키는 結果를 가져다 주고 있다.

길 가는 서울 市民을 붙잡고 “國立中央圖書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과연 그 所在를 알고 있는 市民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不問可知이다. 그렇지만 「명보극장」이나 「신라호텔」이나 「코스모스 백화점」 등의 소재를 묻는다면 아마 거의 누구나 대답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道別로 地方公共圖書館의 現況을 分析하고자 한다.

地方公共圖書館 統計

道別	人口數	圖書館數	座席數	藏書數	'79豫算額 (1,000원)
京畿	4,039,885	14	2,169	57,796	115,612
江原	1,862,107	9	1,550	52,183	57,697
忠北	1,522,155	9	774	44,703	61,156
忠南	2,948,649	10	1,381	50,313	59,030
全北	2,456,455	10	2,317	49,615	62,140
全南	3,984,849	15	4,830	136,928	207,774
慶北	4,858,809	22	5,565	214,974	374,871
慶南	3,280,091	13	1,861	64,367	35,646
濟州	412,021	2	366	19,529	29,137

위의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道別 人口數에 比例하여 圖書館數는 말할 것도 없고, 閱覽座席數, 藏書數 그리고 豫算額이 經對不足하다.

各道中 濟州道의 경우를 例로 들면, 人口數 412,021名에 圖書館數는 2個館 뿐이다. 圖書館 자체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所藏된 藏書數만 해도 2個 圖書館 藏書數를 합한 것이 고작 19,529冊 이라는 것은 또한 말이 아니다. 그중 濟州道立圖書館의 藏書數가 16,872冊, 南濟州郡立圖書館 藏書數가 2,657冊이다. 어느 大學教授의 書齋만도 못한 貧弱한 藏書量이다. 그리고 年間 圖書館 總豫算은 濟州道立圖書館이 24,385,000 원이고, 南濟州郡立圖書館은 4,752,000 원으로 總豫算은 29,137,000 원이다. 소위 郡立圖書館의 年間豫算이 불과 4,752,000 원이란 어이가 없다. 어떤 會社員의 年間 生計費 만도 못하는 貧弱한 額數이기 때문이다.

이 2個 公共圖書館의 79年度 豫算 內譯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두 圖書館의 豫算 項目을 볼 것 같으면 가뜰이나 貧弱한 豫算을 그나마도 地域社會의 住民에 대한 圖書館 서서비스를 전혀 考慮하지 않은 豫算 編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第一 干先順位가 되어야 할 資料費와 施設費는 全体 豫算의 불과 10%밖에 配定하지를 않고 거의 90

單位：1,000원

項 目	濟州道立	南濟州郡立
人 件 費	21,025	3,594
資 料 費	1,676	141
施 設 費	1,300	240
其 他	384	777
計	24,385	4,752

%를 人件費에 充當하고 있는 까닭을 이해할 수가 없다. 南濟州郡立圖書館의 경우, 어느 個人藏書만도 못한 藏書數 2,657冊을 管理 運營하고자 2名의 職員을 雇傭하고 있는데, 年間 圖書館 豫算 4,752,000원 가운데서 人件費條로 3,594,000원을 策定하고, 資料費 141,000원, 施設費 240,000원을 配定하고 있다. 이러한 不合理한 豫算編成은 地域社會의 住民들을 위한 奉仕機關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個人으로 볼 때는 2名의 年間 人件費 3,594,000원이 결코 많은 額數라고는 보지 않는다. 1人當 月俸 160,000원도 채 못되는 額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2名의 職員을 들만한 圖書館의 規模라고 하면 그에 相當한 施設과 藏書를 確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饑餓의 水準의 圖書館 運營狀態는 비단 南濟州郡立 圖書館에 局限된 問題는 아니고 全國 118個 圖書館 가운데 사실상 제구실을 하고 있다는 몇몇 市立圖書館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전부라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全國 設置 市郡圖書館의 不實運營問題로 因하여, 地域社會의 住民들에게 公共圖書館의 存在價値를 認定 받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圖書館이라고는 할 수 없는 看板만 걸어는 도서관을 當局은 무엇때문에 設置 運營하고 있는 것일까? 地方都市나 郡의 文化的 理解度를 誇示하기 위해서인 것일까, 아니면 世俗의 配慮를 위해서 일가.

現在 全國의 市·區·郡 行政區域은 一般市 36市, 서울과 釜山에 34區, 郡이 138郡으로 208個인데 公共圖書館이 있는 곳은 97個館으로 設

置率は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46%이며, 邑面 行政區域은 邑이 173邑, 面이 1,291面으로 總 1,464個인데 圖書館이 있는 곳은 21個館 뿐으로서 이는 全体 邑面 行政區域의 1.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全國 行政區域 總 1,672個에 全國 公共圖書館數는 118個館인 셈인데, 總行 政區域에 比한다면 7%의 적은 設置率이다. 그리고 全國의 市庁所在 地 33市中 市立圖書館이 있는 곳은 25市이고, 아직도 未設置市가 8市 나 된다. 設置率은 76%이기는 하나 市單位地域은 거의 人口 10万 내 지 20万 以上の 大都市이므로 財政規模도 그만큼 크다. 人口 5万 以下의 138個 郡單位 地域에서 그래도 63個 地域은 郡立의 圖書館을 갖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大都市에서 아직도 圖書館을 設置하지 않는 理由를 理解할 수가 없다. 그리고 現在 全國의 1 特別市, 1 直轄市를 包含하여 道單位 地域이 11個인데, 이 중에서 京畿, 濟州道 2個道에만 道立圖書館이 있고, 釜山直轄市에 5個, 서울特別市에 5個 市立 圖書館이 있고 나머지 全南, 全北, 忠南, 忠北, 慶南, 慶北, 江原道 등 7個 地域에는 道立圖書館이 없다. 그 대신 道庁所在地에 市立 圖書館이 있는 데가 8個 地域이 있다.

以上과 같이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의 實態를 分析해 보았는데, 現在의 公共圖書館중 극히 몇몇 市立圖書館을 除外하고는 그 建物만이 있을 뿐 圖書館의 運營費도 資料購入費도 거의 없기 때문에 施設도 不備하고 藏書도 饑餓의 水準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려는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이 아직도 社會의 存在價値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이 한 나라의 社會組織 안에서 뚜렷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이다.

3. 公共圖書館의 育成方案

1) 公共圖書館을 위한 政府意志

칼·야스퍼스는 말하기를 “哲學이 없는 社會는 人間의 人格價値가 轉落이 되고 人間의 精神마저도 하나의 生活道具化되어 자기자신으로서서는 하등의 價値를 지니지 못하며 自身을 믿지도 않는다. 이러한 信賴의 缺如는 個人과 個人 사이 團體와 團體 사이에 不信과 軋轢과 不

安을 造成하게 되어 人間은 不安意識에 直面하게 된다. 이 不安意識은 그것으로부터 逃避할 非正常的인 方法으로서 도박·오락·探偵劇이나 冒險小說 같은 獵奇에서 自我를 찾아내려 한다”고 喝破한 바 있다. 지금 우리의 現實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된다.

이러한 精神的 敗北主義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國民들이 自覺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GNP가 年平均 몇십%씩이나 成長하는 中進國이니 하며 자랑하고 있지만 物量的 經濟成長과는 反比例로 文化的 萎縮相을 露呈하고 있는 現實을 冷殿하게 判斷해서 停滯되고 墮落된 國民精神을 開發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圖書開發 즉 圖書產業의 育成과 그리고 知識과 大衆과의 사이에 생기기 쉬운 知的 空白을 메꾸어 주는데 架橋的 役割을 하는 公共圖書館의 育成이 切實히 要請된다.

새로운 社會에의 變革에 意慾을 불태우는 길은 創造的 生活을 통해 비로소 可能한 것이다. 創造的 生活이란 「日日新」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가 「日日新」하려하는 「日日學」을 해야만 한다. 「日日學」을 하려하는 책의 貯水池인 도서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다. 地域社會의 發展의 바탕은 어디까지나 住民 스스로의 創意性의 開發에 있다고 믿고 있다. 創意性의 開發은 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오늘날 美國의 富強과 發展은 “國民이 無知하다면 民主主義는 成立할 수 없다”고 한 美國 獨立宣言의 精神을 金科玉條로 삼고 教育을 크게 補給시킨 結果이다. 教育은 學校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社會教育이 또한 必要하다는 思想은 美國의 教育의 目標가 良識 있는 國民을 만들고자 하는 根本理念이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美國은 世界에서 제일 발달된 公共圖書館 組織을 갖게 된 것이다. 만약에 美國의 國民이 일찌기 公共圖書館을 「民衆의 大學」이라는 생각(People's University Concept)을 갖지 못했거나, 國民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公共圖書館의 發展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지금부터 100餘年前 덴마크의 경우, 國土는 戰爭으로 들어 들고 國力은 衰弱해지고 國民의 士氣는 衰沈하여 再起할 可望이 없는 絶望的인 狀態에서 허덕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는 全世界에서 가장 富裕한 文化的 樂園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구른트비

를 指導者로 하여 일어난 教育運動의 所産임을 알아야 한다. 구른티비(Grundvig, Nicolai Frederik Severin, 1783~1872)는 덴마크의 사회사업가, 농민교육가, 시인, 종교가로서 제 1차대전 패전 후의 전국에 산 생활교육의 학교로서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조국에, 기독교정신으로서 농촌 부흥을 위해 진력하여 덴마크의 國父로 추앙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덴마크에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日本은 明治維新 때 自由民權運動의 一環으로 明治 20년(1887)에서 明治 30년(1897) 사이에 있어서 夜學會나 青年會를 中心으로 새로운 社會에의 變革의 意慾에 불탔었다. 이 時期에 日本의 젊은이들은 당시 「青年會의 아버지」로 崇拜 받았던 야마모토, 류우지로(山本滝之郎)의 영향을 크게 받아 自立的인 組織으로 公共圖書館을 세웠다. 그리하여 青年들의 自學自習이나 娛樂의 施設로 圖書館의 效果는 컸었다. 이를 기화로 전국각지의 부락마다 公共圖書館이 세워졌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圖書館의 實態는 곧 그 나라 文化의 尺度이요, 國力の 象徴이라 할 수 있겠다.

公共圖書館은 地域社會의 住民들에게 必要한 知識과 情報를 提供, 그들로 하여금 삶의 價値觀을 바르게 갖도록 하는데 있다며는 오늘날과 같이 한 나라의 圖書館의 基幹을 이루는 公共圖書館이 그 全國의 組織에 있어서나 도서관 자체의 社會的 位置가 말이 아닐 정도로 貧弱하여 社會教育機關으로서의 機能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地域社會發展의 沈滯와 나아가서는 文化의 落後性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이 된다. 오늘날 우리의 農漁村은 새마을運動으로 초가집이 없어지고 텔레비 없는 집이 없다시피 하고 刮目할만한 所得增大로 잘 사는 農漁村이 되었지만 새마을計劃에서 文化的要素를 빼고서 진정한 새마을은 不可能하다고 생각한다. 새마을運動은 바로 所得增大와 文化社會 두 가지 概念의 總合体로서 이를 推進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韓國民은 지금 目前의 物量에만 눈이 어두어 知識·情報開發에는 不感症이 되어버린 것일까? 우리나라의 人口數 및 學生數의 增加는 그 上昇趨勢로 보면 西獨, 日本을 능가할 정도인데, 이러한 知識人口 增大의 與件 造成에도 불구하고 圖書出版產業은 다른 나라에 비

해 落後되고 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國民 한 사람의 讀書量은 先進國의 1백분의 1이요, 책을 사는데 쓰는 費用은 4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웃나라 日本의 讀書人口는 全人口의 80%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讀書不毛國이라 하리 만큼 讀書人口가 불과 8~9%에 지나지 않고 있음은 統計로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國民 각자가 크게 反省해야 할 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西紀 1200年頃인 高麗 高宗代에 世界史上 最初로 金屬活字를 創案했다는 名譽스러운 韓國의 出版界가 이렇게까지 보잘 것 없음은 지금의 우리의 文化水準과 아울러 우리나라 經濟界의 無力함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며 700萬名이 넘는 學生들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보면 國家的인 羞恥요 亡身이 아닐 수 없다.

國家의 最高學問機關인 大學이 研究를 빼면 그 生命은 枯死하기 마련인 것처럼 한 나라의 國民이 책을 輕視하는, 책을 읽지 않는 可恐할 風潮의 蔓延은 한 나라의 文化를 退化시키고, 國民을 文化失調 (Cultural deprivation) 狀態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먼저 소위 指導層 人士들, 政治人들은 오늘의 現實을 直視하여 物量爲主의 生活環境의 汚染으로부터 國民들을 救援하기 위해서 그리고 住民의 文化的 要求를 保障하기 위해, 그리고 靑少年兒童의 人間形成을 위해서 必須의 條件인 公共圖書館 設置運動에 앞장 서줄 것을 提唱하며, 그리고 圖書가 經濟開發에 必要한 人力開發의 基本手段임을 認識하고, 圖書는 마치 衣食住와 같이 國民生活의 필수조건이라는 意識을 國民 각자가 갖도록 啓蒙하고 先導하는데 또한 先鋒에 서야 할 것이다.

일찌기 나뽀레옹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愛讀者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戰爭터에서도 <陣中文庫>를 차려놓을 만큼 독서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가 1821년 세인트 헬레나 (Saint Helena) 에 流刑중 에 읽은 책만도 8000권이 넘는다. 그리고 처어칠首相은 1953년에 제 1차 제 2차대전의 「回顧錄」으로 노오벨 文學賞을 받을 만큼 愛讀者였다. 우리의 安重根義士도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이라는 教訓을 남겨 救國의 길은 讀書에 있다고 強調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指導者들이 人類歷史에 큰 貢獻을 하게 된 것이다.

筆者의 기억으로는 일찌기 國會議員 出馬者들이 선거공약으로 자기

고장에 다리를 놔주겠다, 공장을 세워주겠다 등 선거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공약은 많이 들어 왔지마는 자기 고장의 주민들에게生涯에 걸쳐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公共圖書館을 세우겠다고 나선 立候者를 아직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주민들 자신의 內在的 要請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마는 그 보다는 지도층 인사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이 발전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그 첫째가 指導層의 도서관에 대한 理解不足에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指導層이 도서관의 價値와 必要性을 충분히 理解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대담한 行動을 취했다라면 오늘날과 같은 公共圖書館의 沈滯現象은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圖書館이 高度로 발달된 나라에서 비로소 科學과 産業과 文化가 加速的으로 推進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先進國은 못되지만 中進國으로 自處하는 마당에 유독 圖書館만은 아직도 後進性을 못벗어나고 있는 奇現象을 빚어내고 있다. 原則적으로 도서관은 그 나라 그 社會의 發展度와 正比例한다. 美國이나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과 같은 先進國에서는 다른 모든 分野에서 先進性이 뚜렷하다. 그러나 後進國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사회의 구석구석마다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도서관의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각종 행사, 새마을 계획의 적극적 참가, 讀書學習클럽 등의 組織化, 지역사회 내의 각종 學習研究活動을 위해서 적절한 자료의 제공,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文化的 教育的 活動의 기획, 실시에 대한 원조·협력, 도서관 주최의 강연회, 토론회, 음악적 행사, 미술전람회 등 文化教養的인 기회에의 誘引등의 方法에 의한 地域住民의 文化意識의 鼓吹에 政府의 적극적인 援助가 必要하다.

근래 政府는 福祉社會國家 建設을 위해 모든 分野에서 綜合開發이라든가 綜合計劃 또는 廣域行政, 廣域經濟가 推進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圖書館 開發計劃도 政府의 綜合開發計劃 안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 있지만 다행히 政府는 第五共和國의 80年代의 文化政策을 推進하는데 있어 圖書館開發에 대한 政府의 積極的인 意志를 表明한 바 있다.

이것은 第五共和國 政府의 文化的 關心度를 國民들에게 闡明한 것으로 解釋되며, 앞으로 政府가 推進할 것으로 보이는 圖書館 發展計劃과 圖書館法 改正 등에 우리 圖書館人으로서 깊은 關心을 갖게 한다.

2) 圖書館行政部署 新設問題

圖書館行政의 指導體制를 確立하기 위해서는 文敎部에 全体 館種別 圖書館을 統轄하는 「圖書館局」을 新設하여 그 밑에 大學圖書館課, 學校圖書館課, 公共圖書館課, 特殊圖書館課 등 4個課를 두어 指導 監督의 一元化를 期했으면 한다. 이러한 構想은 現在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行政機構의 縮少方案과 政府豫算의 效率의 運營 方針에 違背되는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政府가 憲法에 明文化하고 있는 國民의 平生 教育을 強力히 펼쳐 나가는데 있어 公共圖書館의 育成이야말로 政府가 當面하고 있는 어떤 施策보다도 못지 않게 時急하고도 重要的 課題라고 믿어 當然한 提意가 아닌가 생각한다.

現在는 文敎部에 圖書館行政 專担部署조차 없이 大學圖書館 行政은 大學教育局 大學行政課에서 管掌하고, 學校圖書館은 普通教育局 教育行政課에서 그리고 公共圖書館과 特殊圖書館은 社會職業教育局 社會教育課에서 主管하고, 그것도 圖書館教育을 받은 일도 없는 그課所屬 職員 한 사람이 다른 業務와 같이 兼掌을 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은 그동안 行政府가 圖書館行政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음을 立證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公共圖書館의 경우, 所屬庁의 多元化로 圖書館의 行政體系가 多元化되어 있으며, 監督指揮도 또한 統一되어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數 118個館 가운데 이를 所屬庁別로 보면, 文敎部傘下 教育委員會 所屬이 77個館이고, 內務部傘下 地方自治團體所屬이 35個館, 그리고 私立機關所屬 6個館으로 되어 있다. 가뜰이나 圖書館 行政을 펴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施設이나 資料의 貧困으로 제대로 奉仕할 수도 없는 形便인데, 所屬庁마저 二元化되어 圖書館間의 相互協力體制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公共圖書館의 沈滯를 加重시키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圖書館行政機構의 破格的인 全面的 改編 없이는 圖書館 發展은 決코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現在 公共圖書館이 地域社會의 呼應을 얻지 못하여 發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기초한 圖書費, 職員費, 建物 등이 지역사회의 지지를 잃고 있다는 事實을 立証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公共圖書館의 饑餓的水準의 現狀을 가져오게 된 主要한 理由는 圖書館行政의 貧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처럼 公共圖書館이 教育委員會나 內務部 所屬下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圖書館은 圖書館 獨自의 行政機構를 갖고서 教育委員會와 똑같은 權限을 가진 地方行政의 主体로서 圖書館 獨自의 行政을 펼쳐 나가야 될 것이다. 美國을 비롯한 구라와 여러나라의 圖書館이 市民의 期待하는 圖書館으로 發展하게 된 主要 原因은 「圖書館 獨自의 行政機構」(Governing instrument)를 가졌기 때문이다. 先進國家에서는 圖書館長은 教育監이나 警察署長과 똑같은 地位를 가진 公務員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에서는 市民의 代表들로 構成된 「圖書館委員會」를 두고 여기에서 圖書館의 運營을 監督하고 豫算, 人事에 있어서도 獨自의 權限을 가지고 있으며, 圖書館長은 同委員會의 事務局長의 役割을 맡고 있다. 그리고 圖書館長은 반드시 專門職司書로서 補하고 있다. 그 이유는 圖書館은 책이 없으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고, 책만 있다고 해서 도서관이라고도 할 수 없다. 거기에는 圖書館을 圖書館답게 運營하고 奉仕하는 主体가 없어서는 안된다. 그런 意味에서 圖書館長職은 圖書館學教育을 받은 司書라야 하겠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圖書館의 本質의 重要性을 理解하게 된다면 先進諸國의 圖書館과 같이 運營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實情은 地方財政의 貧困으로 財源 確保가 어렵고, 地方 自治體의 自立性이 희박하여 政府에 依存度가 絶對的이다. 그렇다고 地方有志들의 補助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國庫의 補助를 期待 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圖書館 發展의 最大 障礙 要因으로는 地域社會 住民들의 圖書館에 대한 理解가 거의 없기 때문에 住民들의 內在的 要請이 없는 것보다 큰 問題이다. 다시 말하면 책을 읽고 싶다는 住民이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책을 읽는 市民」, 「생각하는 市民」이 많아져야만 社會全體가 健全해지고 民主意識도 높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現在 政府가 大의으로 推進하고 있는 「새마을運動」처럼 國家的 次元에서 圖書館政策을 強力히 推進하도록 했으면 한다. 즉 大統領 直屬機關으로 「圖書館發展委員會」를 新設하여 汎國民的運動으로 「圖書

館運動」을 展開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國民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浮刻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圖書館」이란 名稱을 情報化時代의 感覺에 맞도록 假稱 「情報開發센터」라든가 「公共圖書館」을 「社會教育館」 또는 「市民의 大學」 등으로 바꾸는 일 등을 圖書館發展策의 하나로 그 試案으로서 考慮할 수 있는 問題라고 생각한다.

「圖書館」이란 名稱 그 自体는 그 뜻이야 어떻든 과거의 先入觀念 때문인지는 몰라도 너무 靜般인 觀念인데다가 一般人들에게 生産的인 이미지를 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國民들의 啓蒙에 적지 않은 隘路를 겪고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3) 圖書館法 改正問題

韓國圖書館協會 法制委員會는 1979년에 「圖書館法 改正草案」을 作成한 바 있으나 그동안 諸般與件의 變化에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改正案의 필요성을 느껴 1981年 2月 21日字로 改正에 따른 會員들의 意見提出을 要請한 바 있다. 同意見書로 紙上 公聽會에 代身한다고 하였는데, 그후 3月 7日까지 館界 會員들의 意見을 받아 充分히 綜合整理하여 同法 改正草案 一次調整案을 確定시킨 다음 同年 6月 10日 確定된 圖書館法 改正案을 文教部에 建議하였다. 同法 改正案은 文教部 社會職業教育局 審議委員會를 거쳐 同年 7月에 그 二次調整案을 法制處에 回附하여 條項別로 審議를 마친 다음 最終案이 確定되는 대로 빠르면 9月 定期國會에 正式 上程될 것이라고 韓國圖協側에서는 말한 바 있었다. 同 改正案은 現行圖書館法의 全面的인 改正으로써 우리 圖書館人들에게 鼓舞的인 事實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期待가 컸었다. 5·16革命 이후, 1963年 10月에 圖書館法이 制定된지 18年 만에 그동안 우리 圖書館協會의 끊임 없는 노력의 보람이 있어서 이번에 政府當局이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기뻐했다. 우리는 81년에 우리의 오랜 宿願인 現行 圖書館法 改正이 꼭 成就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후 알고 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文教當局은 同法 改正草案을 法制處에 回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同法 改正에 대한 우리의 最終 確定案은 政府當局에 의해 다시 默殺되고 말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후 各급 言論機關에서 特別企劃記事로 크게 다루어졌다. 특히 朝鮮日報에서는 文化面 특별기

획기사로 “書庫에 문혀온 圖書館法 18年”이란 제목으로 同年 10月 8日字에 다루었고, 東亞日報에서는 「오늘의 氣流」라는 특별기획사란을 活用, “成長의 그늘 公共圖書館”이란 제목으로 同年 10月 12日字에 다루었다. 그밖에 각 신문, 방송, 텔레비전 등에서 여러차례 도서관법 개정 문제와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을 비롯한 전체 도서관 문제가 크게 다루어졌다. 이에 勇氣를 얻은 우리 韓國圖協에서는 圖書館人들의 宿願인 「圖書館法 改正案」을 82년에는 기필코 관철시키기 위한 推進方案을 계속해서 講究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圖書館人들은 政府의 微溫의인 處事에도 不拘하고 決코 失望하지 않고 同法 改正을 強力히 推進한다는 뜻에서 筆者는 그중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한두가지 條項에 대해서 다시 한번 強力히 開陣하고자 한다.

現行 公共圖書館法の 設置規定을 보면 圖書館法 第7條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의 向上을 위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公共圖書館의 設置育成에 努力하여야 한다」는 任意規定과 同法 第18條 1項에 「各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할 수 있다」는 獎勵規定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義務規定 아닌 任意規定 또는 獎勵規定으로 되어 있는 現行 公共圖書館法은 우리 地域社會의 實情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우리 圖書館人들은 機會 있을 때마다 그 改正을 主張한 바 있다.

그 이유는 先進國民들처럼 國家的 또는 汎社會的運動이 없으면서도 健全한 讀書風土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나라의 경우라면 몰라도 우리 國民처럼 讀書를 싫어하고 讀書不在의 現實에서는 現行法은 너무도 現實을 看過한 消極的인 規定으로써 決코 만족할만한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리하여 同法 改正草案에서는 現行法 第7條와 第18條 1項을 削除하고 第14條(設置) 1項에 「地方自治團體는 地域住民의 平生教育 및 文化發展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 育成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함으로써 단순한 任意規定 아닌 명확하고, 強力성과 拘束力이 있는 義務規定으로 法을 改正하고 있다. 同條項이 우리의 原案대로 通過했을 경우, 그 運營 監督을 現行法 第9條와 같이 郡·市·道 教育長에게 一任할 것이 아니라 國家的 레벨에서 公共圖書館行政을 強力히 推進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 同 改正草案에서는 第

9條를 削除하고, 第6條 2項에 「部署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라고 삽입하고 있다. 앞으로 同法 施行令을 改正할 때 이에 대한 施行細則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現行法 第8條를 削除하고 改正草案에서는 第8條 第1項에 「全國圖書館의 均衡 있는 發展과 圖書館機能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圖書館發展委員會를 둔다」라고 했고 同條 第2項에는 「圖書館發展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으로 定한다」라고 하였다. 同條項의 設置는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圖書館發展委員會」를 大統領 直屬機關으로 하여 國家的 레벨에서 圖書館政策을 樹立하도록 하기 위한 뜻에서 인 것이다. 다음으로 現行法 第8條에서는 圖書館 閱覽料를 利用者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同法 改正草案에서는 閱覽料를 廢止하였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改正이라 할 수 있다. 利用者로부터 入館料 기타 圖書館資料의 利用에 대한 對價를 徵收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地域社會의 住民의 배울 權利, 알 權利의 保障은 近代公共圖書館의 任務로서 이를 制度的으로 保障한 것은 公共圖書館의 恥部를 除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機關의 設置와 運營管理는 法을 基礎로 하여 이룩되기 때문에 그 法 內容의 充實 與否는 그것의 發展을 左右하는 것이다. 圖書館은 權力 機關이나 營利團體가 아니고 純粹한 奉仕機關이며, 國民知識의 向上을 위한 社會一般의 精神의 搖監으로서 國家産業과 國民精神開發에 있어서 必要不可缺의 基礎的 分野인데도 中進國이라 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認識이 안 되어 一般産業部門에서 發揮되고 있는 效力에 비해 아주 以下의 것으로 誤認되고 度外視되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이야말로 國民生活 各部門 開發의 基盤이 되는 것이며, 國家經濟計劃이나 學術振興策 못지 않게 圖書館의 育成도 重要한 課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經濟計劃이나 學術振興을 위한 立法措置에 못지 않을 強力한 立法基盤과 이의 推進力이 要請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現行圖書館法과 同 施行令은 問題點과 未備點이 많으므로 이를 全面的으로 改正하여 圖書館行政을 強力히 밀고 나갈 法과

그에 따른 行政組織의 構成을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方法으로 政府로 하여금 公共圖書館 發展을 위한 現行圖書館法 改正을 貫徹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점이 가장 큰 當面問題라 하겠다.

4) 公共圖書館 增設問題

讀書는 勸奨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施設 環境造成이 先行되어야 한다. 먼저 市民의 몸 가까이에서 도서관이 있어야 하고, 市民들이 散步하다가 들어가고 싶을 만큼 安樂感을 주는 施設을 갖추어야만 하겠다. 그리고 市의 中心部에 國立中央圖書館이 있고, 그곳은 全市의 圖書館資料 補給基地가 되어야 한다. 國立中央圖書館에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있어서, 全市의 小地域 圖書館 施設과의 사이에 마치 貯水池 役割을 하도록 되어야 한다. 즉 家庭의 水道管의 給水網처럼 도시의 配本網이 確立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 서어비스網은 中央圖書館과 分館과 移動文庫로 組織이 되어서 利用者들이 언제든지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서어비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先進國의 圖書館은 이와 같은 圖書館 서어비스網과 施設이 널리 普及되어 있다. 英國은 人口 5,400萬에 公共圖書館數가 약 11,000個館, 一市에 20個館 내지 30個館이나 된다. 人口 500名에 1個館이 있는 셈이다. 그리고 2次大戰 이후에 獨立된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人口 200余萬에 公共圖書館은 600余個所나 가지고 있다. 그 나라가 砂漠을 沃土化하고 自國보다 몇 배나 더 되는 아랍 國家들을 相對하여 이겨 나가는 그 原動力의 出處를 이 하나의 事實만으로도 가히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400萬의 人口를 가진 결코 작지 않은 나라에서 公共圖書館이 겨우 118個館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貧困이다. 그나마 118個館 가운데 제 구실을 하고 있는 도서관은 몇몇 안 되고 그 대부분은 豫算 施設 藏書數의 絶對不足으로 運營이 어려운 實情이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이라고는 하지마는 圖書館이라고 볼 수 없는 看板만 걸어논 도서관이 많다는 사실이다.

近代化란 物量的 經濟成長과 精神開發의 兩面이 均衡과 調和를 이룰 때에 비로소 健全한 近代化가 이룩되는 것이다. 政府는 새마을의 文化센터로서의 公共圖書館計劃을 樹立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指摘

한 바 있지마는 새마을 計劃에서 公共圖書館이 빠지고서는 진정한 새 마을일 수가 없다. 公共圖書館은 우리에게 公共의 場을 만들어 주고 새로운 生活情報을 提供하는 機能으로서 또 우리에게 慰安을 주고 疲勞를 덜어주는 文化福祉施設이기 때문이다.

政府는 어떤 方法을 써서라도 人間이 보다 나은 것을 스스로 渴求하고 그것을 얻도록 國民들을 引導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平生教育의 길이다. 圖書館施設의 增大는 도서관 그 自體의 充實과 發展에 그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圖書館을 통한 보다 나은 社會에의 到達인 것이다.

政府는 地域社會의 모든 住民으로 하여금 平生을 두고 自己教育, 인포메이션, 藝術鑑賞, 調查研究, 레크리에이션 등을 充足시킬 수 있는 地域社會의 文化殿堂의 구실을 하는 公共圖書館을 國家에 의하여 制度化하여 福祉國家社會의 面貌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것은 國民教育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國民教育은 傳統的으로 學校教育 偏重政策을 써왔다. 學校만 卒業하면 그날로 責과는 因緣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一般人들에게 있어 公共圖書館의 存在란 生소한 對象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오늘날 公共圖書館이 當初의 設立目的과는 反對로 學生들의 受驗工夫 場所로 變貌해 버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인것 같고, 그래서 地域社會의 住民들과는 無關한 存在가 돼버린 것이다. 政府는 이 問題를 深刻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第五共和國政府가 國民의 平生教育을 憲法 條項에 넣은 것은 크게 歡迎하지만 이를 實踐, 振作하기 위해서는 政府가 社會教育部門에 보다 積極的인 政策을 樹立하고, 더 積極的으로 投資하기를 期待한다. 公共圖書館은 이러한 社會教育의 센터이다.

5) 財閥들의 支援問題

汎國民의인 汎社會的인 政府의 施策을 遂行해 나가는데 있어서 國家 財政이 미치지 못할 때는 財閥들의 支援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平生教育의 一環으로서의 公共圖書館 育成에 대한 政府의 積極的인 意志를 國民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讀書環境의 造成이라든가 知識人을 尊敬하는 社會風土를 만드는

일 등이라 하겠다.

우리의 現實은 어찌된 일인지 放送, TV 등과 같은 知識産業分野 중에서도 電波産業部門에는 巨大한 資本이 계속 投資되어 이른바 눈부신 發展相을 나타 내고 있는데 反해, 知識·情報生産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圖書出版이란 活字産業部門이라든가 地域社會의 文化센터 같은 精神開發部門에는 政府는 물론 資本家들이 投資를 주저하고 있는 實情이다.

電波産業部門중에서도 텔레비전의 登場으로 인하여 公共圖書館의 地域社會의 인포메이션 센터로서의 存在價值는 더욱 없어지고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도 텔레비전에 여가를 많이 빼앗겨 독서하지 않는 우리 국민을 더욱 채과 담을 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美國은 文化센터의 구실을 하는 公共圖書館組織이 世界的 典型이 되어 있다. 美國의 公共圖書館이 일찍부터 많이 建設해서 大衆의 啓蒙·文化的 向上에 多大한 貢獻을 하게 된 것은 美國은 구라파와 같이 王室·寺院·封建領主나 일부 貴族階級에 의한 博物館的 圖書館의 傳統에 구속됨이 없이 國民의 自由로운 開放된 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는 自由 平等과 基本人權의 確立이 되어 있는 好條件下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美國의 大財閥들이 앞장 서서 公共圖書館 育成을 支援했기 때문이다. 美國의 富豪 카네기는 鐵網王으로 有名하지만 그는 晩年에 그 돈을 모두 社會奉仕를 위해 寄附했다. 그는 첫번째로 教會를 짓는데 多額의 돈을 회사했다. 그 다음에는 民衆의 大學인 公共圖書館을 建設하는데 投資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도서관의 필요성을 알았고, 圖書館員 專門教育의 必要性을 認識했다. 美國의 圖書館學은 財閥들의 教育財團의 援助에 의해 急速히 成長하게 되었던 것이다. 카네기는 司書教師의 養成을 目的으로 黑人大學인 Hampton Institute 에 圖書館學校를 設立하는데 그 基金을 전부 부담했다. 그리고 North Carolina 大學 圖書館學校도 그에 의해서 세워졌고, Chicago 大學 圖書館도 이 財團의 援助를 얻어 開設된 것이다. 그는 자기 祖國인 美國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에게도 學校教育의 補助機關으로서 公共圖書館의 必要性을 절실히 느껴서 世界各處에 圖書館을 세웠다. 그 다음에 大學의 研究機關에 寄附했다. 이것을 보면 카

베기思想이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카네기 뿐만은 아니다. 록펠러 같은 財閥도 圖書館의 重要性을 認識하여 Columbia 大學 圖書館學校를 開設하는데 補助했으며 美國圖書館協會 (ALA)는 1876年, 카네기 財團, 록펠러 財團의 援助를 받아 創立되었고, 그후 財政難 때문에 그 維持가 어렵게 되자, 계속적 원조에 의해 경영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美國에 있어서 圖書館教育의 發達は 이 두 財團의 貢獻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教育財團外에도 로젠월드 財團 (Julius Ros-senwald Fund) 은 黑人教育을 위해 支援했는데, 全國 新設 黑人學校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의 學校圖書館의 充實에 寄與했다.

우리나라는 카네기나 록펠러 등과 같은 財閥이 없다. 오늘의 우리나라 財閥들의 意識構造가 問題이다. 圖書館을 마치 社會의 裝飾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화려한 저택에 骨董品과 圖書를 裝飾用으로 나란히 陣列해 놓고 있는데, 읽지도 않은 死藏된 table books 이라면 藏書가 絶對不足한 公共圖書館에 寄贈해 주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우리는 日帝植民地下에 있을 때 獨立運動家들이 우리 民族에게 新文明을 普及하는 것만이 日本의 굴레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私財를 털어 民族圖書館을 設立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들이 후에 각각 公共圖書館의 母體가 된 것이다.

4. 結 論

3,400萬의 人口를 가진 결코 작지않은 나라에 公共圖書館數가 불과 118個館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貧困이다. 그나마 그것마저 몇몇 圖書館을 제외하고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한채 運營難에 허덕이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이 公共圖書館이 饑餓的 水準에 있는 現狀은 圖書館 豫算의 貧困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國民全體와 社會全體가 圖書館에 대한 認識이 지극히 稀薄하다는 事實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公共圖書館의 必要性에 대한 國民들의 內在的 要請이 거의 없거나 크게 作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政府의 指導層이나 政治人들의 圖書館에 대한 理解度가 不足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圖書館 같은 것은 있어도 무방 없어도 담당할 것이 없다는 정도로 국민들에게 無關心의 對象이 되어 있는 것이다. 國民들의 圖書館에 대한 無關心 내지 外面心理는 國民들의 內在的 認識의 問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政府의 圖書館政策의 不在에 있지 않으나 생각 된다.

公共圖書館의 育成目的이 地域社會의 住民들에게 필요한 知識과 生活情報를 提供, 그들로 하여금 삶의 價値觀을 바르게 갖도록 하는데 있다면 오늘날과 같이 한 나라의 도서관의 基幹을 이루는 공공도서관이 그 전국적 조직에 있어서나 도서관 자체의 社會的地位가 말이 아닐 정도로 빈약하여 社會教育機關으로서의 機能을 담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地域社會 發展의 沈滯를 가져오게 하고 나아가서는 韓國文化의 落後性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이 된다.

近來에 政府는 福祉社會國家 建設을 위해 모든 分野에서 綜合開發을 果敢히 推進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제에 圖書館 開發計劃도 政府의 綜合開發計劃 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행히 政府는 第五共和國의 80年代의 文化政策을 推進하는데 있어 公共圖書館 發展에 대한 政府의 積極的인 意志를 表明한 바 있다. 이것은 第五共和國이 志向하는 福祉社會國家 建設의 一環으로써, 그리고 憲法 條項에 明文化된 國民의 平生教育을 實踐 具顯하기 위한 施策으로써 크게 歡迎하는 바이며, 그에 대한 期待가 크다.

参 考 文 献

1. 生田正輝 著.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諸問題. 慶應通信, 昭和30年(1955)
2. 石井敦・前川恒雄 共著. 図書館の 発見, 日本放送出版協會, 昭和54年(1979).
3. J.H.Shera, Sociological Foundations of Librarianship. 藤野幸雄 訳.
図書館の 社会学的基盤. 日本図書館協會, 1978.
4. 彌吉光長先生喜壽記念会. 図書館と 出版文化, 1977.
5. 塩見昇. 図書館と 社会教育「現代社会教育実践講座」第1巻, 民衆社, 1974.
6. 住民運動と 図書館「図書館雑誌」Vol. 67, 1973. 6.
7. 図書館問題研究会編. 「図書館づくり運動入門」, 草土文化, 1976.
8. 中川徳子, “住民の求める図書館員像”「月刊社会教育」Vol. 18, 1974. 2.
9. 宮原誠一, 図書館と社会教育, 河出書房, 1956.
10.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ublic Library Service, Chicago, 1956.
11. Landheer, B. Social Functions of Libraries, New York, Scarecrow,
1957.
12. Butler Pierce. “The Cultural Function of the Library : Library
quarterly, Vol. 22. 1952.
13. 鍾路図書館, 鍾路図書館六十年史, 1980.
14. 金世翊 著, 図書館과 社会, 韓國図書館協會. 1971.
15. Jaspers, Karl, 尹明老等訳, 現代의 精神的危機, 日新社, 1959.
16. 朴尚均, 知識産業의 開發과 図書館政策, 국회도서관보, 1973. 10월호.